

'대체가정' 복지시설 호평

구로복지관 시범운영...양로원 기피 대안책

양산 자비원에서 생활하던 유안근 할아버지(72)는 최근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구하고 있다. 유할아버지는 "자비원에 있으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었지만, 시설에 수용되다보니 나태해지고 측은한 생각만 들게 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령이었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비원으로 다시 들어 가야 할 처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로복지관(관장 도후·신홍사주지)이 시범운영중인 대체가정(재가복지시설) '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최영덕 나금선 이종숙할머니들은 단독주택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 식사준비 등 간단한 집안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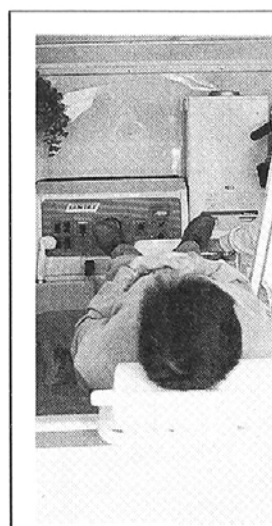
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청·장년 어린이를 한 가족으로 묶는 형태의 '대체가정'은 복지시설 입소를 꺼려하는 어린이 노인들에게 그동안 느끼기 어려웠던 가족간의 사랑과 정서적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고아원에 보내

질까봐 아버지 시신과 열흘동안이나 지냈던 최모군(12세 서울D초등학교 6년)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S06마을은 어머니적 인 보모와 7~8명의 고아들이 형제 자매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통계청의 95년 인구총조사결과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는 2백 18만2천가구로 전체일인가구중 16.8%를 차지하며 2천년에는 노

인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도 1만 7천여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김덕곤씨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재가복지시설 위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 고교도 복지수용시설의 형태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길음복지관은 이동목욕차를 이용 노인·장애인에 정기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불교교양대 인가제 내년실시

조계종, 학제2년 이상등 기준안 마련

불교(교양)대학 인가제가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종단등록 불교(교양)대학 대표자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불교대학 인가제 실시방향을 밝혔다.

포교원이 이날 발표한 인가기준(안)은 학제 2년 이상, 필수교과목 지정, 5인 이상의 강사진 확보, 30명 이상(법당 포함)의 학사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교과목은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신행 포교방법론 상담심리학 등 11개 과목이다.

불교대학의 인가제 실시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교사 배출에

목적용을 두고 있다. 불교대학에서도 종단 포교사 양육역할을 맡아 포교원에 건의해 왔었다.

포교원은 인가한 불교대학에 대해서 졸업시 포교원장과 해당대학장 공동명의로 졸업장 수여, 포교사 응시 때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교대학의 종단등록 기준도 기존의 6개월 학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필수교과목 개설, 학생수 50명 이상, 대학의 설립자 이사장 학장 중 1명은 조계종 소속스님으로 하는 등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불뉴스

조계종총회 15일부터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봉)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불교회관 1층에서 제1백26회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는 성원미달로 지난 3월 29일 폐회된 1백25회 총회에서 이월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선본사 직영사할 해제 요청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위 구성 등 20여개 안건이 재상정됐다.

'좋은일하는 사람모임' 창립

정의롭고 맑은 심령나는 사회 만들기를 서원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원운스님)'이 4일 의정부 중앙빌딩 4층에서 창립됐다.

원운스님(통곡역경원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관내 40여명의 출·재가자들이 동참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종단 총파를 초월하여 포교복지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간병인제도 활성화, 소년소녀가장 장학사업, 노인 직업알선, 극빈자 돕기 등이다.

전불련 불교자주화 기원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3월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백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종단개혁 3주년 불교자주화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조스님(불교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종단개혁 3주년을 맞아 법문을 통해 '종단개혁 3주년을 맞아 법문을 통해 '종단개혁 3주년을 맞아 법문을 통해 '종단개혁 3주년을 맞아 법문을 통해'고 강조했다.

LA동국로알대 설명회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8일 90주년 기념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미국 LA의 '동국-로알대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LA 로알 한의과 대학교 및 부속한방병원을 인수한 동국대는 14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하는 등의 학생모집 및 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개했다.

위덕대 내년 특차 30%로

위덕대학교(총장 손재석)는 수능성적만으로 특차정원을 실시하며, 특차모집인원도 97년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등 98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3월 25일 확정 발표했다.

불기협 '대선보도' 논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3월29~30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수회에서는 공평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97 대선, 불교언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나는 목욕탕' 불러주세요

길음복지관, 노인·장애인 대상 차량서비스

"장기간 외방생활중이거나 중증장애 환자들은 '신나는 목욕탕'을 불러만 주세요요."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무료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제작 이동목욕차 '신나는 목욕탕' 시연회가 3월31일 오후 2시 길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에서 개최됐다.

길음복지관 '신나는 목욕탕'은 장기간 외방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위생 청결상태를 유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목욕탕은 한국형 가우구조로 설계, 중증환자용 들것, 차량용 자동리프트를 이용 환자를 가정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불편을 덜어준다.

또 목욕이 끝난뒤에는 신체소독과 함께 상처부위 치료도 해주는 전자동목욕차량이다.

신나는 목욕탕에는 온수는 물론 보디샴푸 소독용 오일등이 자동 공급되는 자동목욕기가 설치돼 신체와 머리 치아등을 깨끗히 씻겨준다.

신나는 목욕탕 이용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서 보호자의 도움없이 목욕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길음복지관(985-0165)은 목욕대상자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1주일에 1번의 목욕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금강대등 3곳 단설대 설립신청

교계 5개교로 늘어

천태종(총무원장 윤덕) 금강학원 금강불교대학과 능인선원(원장 최기공) 능인불교선양원, 학교법인 금화학원이 지난 3월말까지 신청서한 단설대학 설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접수시켰다.

금강불교대는 총남 논산에 학교부지를 마련, 2천년 개교를 예정으로 입학정원 1백명(총정원 4백명)에 불교, 동양철학 2개학과를 개설한다. 또 능인선원은 경기 화성에 입학정원 50명(총정원 2백명)의 불교학과를 개설, 9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금화학원 역시 2천년 개교를 예정으로 불교, 일본, 영문 등 10개학과에 입학정원 4백명(총정원 1천6백명) 규모로 부산에 설립한다.

이로써 불교계에서 설립예정인 단설대학은 지난해 신청한 태고종 동방불교대학과 학교법인 포문학원의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을 포함해 대학 4개 및 대학원 대학 1개 등 모두 5개교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전사법 자율성 역할"

전불련, 종교법인법 주장

개정 전종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 사찰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위축시켜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종교법인법의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사법 개정의 문제점과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주제로 8일 열린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 토론회에서 "개정전사법은 불교자율성을 규제하는 조항이 강화됐다"며 불교계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사법을 폐지하고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BBS 이사장 직무대행 영답스님

긴급이사회 사장직대 서돈각·전우 권오현씨

중하스님 1억 원제 밝혀

불교방송 긴급이사회가 4일 열린 이사장 중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의 사임을 결의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에 영답스님(석왕사 주지), 사장직무대행에 서돈각 전 부총장 겸 기획과장 이태호씨가 자청한 기자회견 과정을 드러냈다. 이씨는 "재단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4년 12월20일 불교부총장 송석구의 성명이 들어오던 한 일은행 신바람통장서 1억원을 인출, 송병욱 상무를 통해 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23일 김선도씨

금으로 났던 1억원을 변제했다

고 밝혔다. 이사장스님의 이사출자금 1억원 문제는 2일 불교방송 전 총무국장 이태호씨가 자청한 기자회견 과정을 드러냈다. 이씨는 "재단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4년 12월20일 불교부총장 송석구의 성명이 들어오던 한 일은행 신바람통장서 1억원을 인출, 송병욱 상무를 통해 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23일 김선도씨

청소년 헌혈행사 전개

파라미터, 18일~초파일

(사)파라미터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18일 동대부고에서 6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까지 전국적인 헌혈운동을 벌인다. 또 이번 행사에서 수거된 헌혈증은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 국민환자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불행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파라미터 헌혈행사는 전국 1백69개 분회 9천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들에게 사신공양(捨身供養)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두 사무국장은 "헌혈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정신의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라며 "학생들에게 헌혈운동이 생명공양운동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인사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시킬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버렸다.

화의 우수성을 가장 빼어나게 상징하고 있는 팔만대장경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그리 쉬운가.

전년도 원래 두 주일만 하기 로 됐으나 팔만대장경의 국보적 가치를 중히 여긴 미술재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최하고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1일부터 27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팔만대장경관 전시회가 계획됐다. 이 전시행사는 문화유산의 해인 율해를 빛내는 가장 두드러진 전시가 될 듯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문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최하고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1일부터 27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팔만대장경관 전시회가 계획됐다. 이 전시행사는 문화유산의 해인 율해를 빛내는 가장 두드러진 전시가 될 듯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문

무산된 대장경관 전시회

단축에서 직전 전시를 앞당기고 뒤 전시를 늦추고 하여 한달간의 기간을 만들었다. 범보종할 해인사로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최하고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1일부터 27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팔만대장경관 전시회가 계획됐다. 이 전시행사는 문화유산의 해인 율해를 빛내는 가장 두드러진 전시가 될 듯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문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요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훈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 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옹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같이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의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짚은 언어 맛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738-6270, 735-7202 팩스: 733-1016